

2024년 대림절 말씀묵상

대림절 1 | 12월 01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

_누가복음 2:25-38

대림절 2 | 12월 08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

_누가복음 1:26-38

대림절 3 | 12월 15일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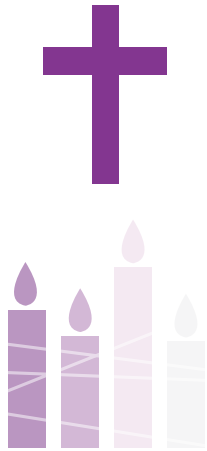
_누가복음 2:8-20

대림절 4 | 12월 22일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

_마태복음 2:1-11





대림절의 의미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Advent는 라틴어로 “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심을 뜻합니다. 대림절의 시작은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의 어느 한 날로 지키며, 늘 네 번의 주일을 보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 통합 말씀 묵상 안내

대림절 통합 말씀 묵상 안내

- 01.** 시간을 따로 내어 그 날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환경이 허락되어 소리내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 02.**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 03.** 말씀요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눔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 모임에서는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 말씀요약을 읽고 나눔질문을 함께 나눠주세요.
- 04.** 한줄 기도문을 작성하신 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1 누가복음 2:25-38

-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 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 36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 37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 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대림절 2 누가복음 1:26-38

-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 28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림절 3 누가복음 2:8-20

-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대림절 4 마태복음 2:1-11

-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

(누가복음 2:25-38)

주제성구

—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_눅2:25

약속을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들의 통치 속에서 겪는 고통과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침묵을 견디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것은 아주 오래 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사 9:6-7)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25절).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26절)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성전에서 마침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30-32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두 번째 사람은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지만 84세가 될 때까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대림절의 시작을 맞이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통과 허무함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눔 1 오랫동안 기다려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눔 2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며,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기억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나눔 3 나는 어떠한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 가정, 소그룹과 함께

- ①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고
- ② 한 줄 기도문을 각자 작성하시고
- ③ 한 줄 기도문을 읽고 모임을 마칩니다.



한줄기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

(누가복음 1:26-38)

주제성구

—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_눅1:38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여성으로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는 놀람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순종으로 나아간 마리아는 사실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오기까지 마리아의 삶은 비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거듭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두려워하던 마리아는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결단에 앞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단 한 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본 적 없고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하여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순종은 인간의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회심의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의 돌레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비천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동하는 여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신뢰하는 삶에서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 1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요?

나눔 2 이성과 경험의 돌레를 너머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눔 3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가정, 소그룹과 함께

- ①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고
- ② 한 줄 기도문을 각자 작성하시고
- ③ 한 줄 기도문을 읽고 모임을 마칩니다.



한줄기도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

(누가복음 2:8-20)

주제성구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_눅2:14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기쁨의 찬양은 대림절과 성탄절마다 울려 퍼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이 찬양을 선포하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자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음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서둘러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경험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이제 목자들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복음을 듣고 즉각 반응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같은 찬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목

자들처럼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과 기쁨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찬양할 때입니다. 복음을 노래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노래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사들과 목자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삶을 즉시 변화시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오늘을 살며 변화를 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눔 1 목자들처럼 복음에 즉각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나눔 2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과 기쁨의 찬양이 우리 삶에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나눔 3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같은 제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 가정, 소그룹과 함께

- ①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고
- ② 한 줄 기도문을 각자 작성하시고
- ③ 한 줄 기도문을 읽고 모임을 마칩니다.



한줄기도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

(마태복음 2:1-11)

주제성구

—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_마2:10

마태복음의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들도 그 탄생이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본문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즉 헤롯왕, 동방박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마리아, 아기 예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대비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거짓 왕 헤롯과 참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고 헤롯을 중심으로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교 자도자들과 예수께 경배를 드리러 방문하는 이방인 박사들의 모습이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 뜨는 쪽에서’ 온 사람들이며 유대인의 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과학에 능통했던 이 이방인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본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고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럼으로 마태복음은 이 별이 출현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온 족속에게 미치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으며 자신들이 가져온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60장 6절에 기록된 바,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와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혜로운 이방인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기뻐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나눔 1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따라 먼 나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나눔 2 이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눔 3 동방의 박사들은 온 인류의 구원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황금, 몰약, 그리고 유향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가정, 소그룹과 함께

- ①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고
- ② 한 줄 기도문을 각자 작성하시고
- ③ 한 줄 기도문을 읽고 모임을 마칩니다.



한줄기도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7길 Tel.924-6798 Fax. 927-9009
www.youngahm.kr